

‘요소수 대란’에 경유 승용차 입지 축소 ‘가속’

친환경차에 밀려 출시 모델 감소 1~9월 국내판매 19만5835대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32% 줄어 배기가스 규제 등 경쟁력 떨어져

친환경차가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동안 높은 연비와 강한 토크로 인기를 끌었던 경유 승용차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발(發) 요소수 부족 사태가 겹치면서 경유차 판매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경유차에 넣을 요소수가 없어 차량을 생산하고도 출고를 하지 못하거나, 탁송할 트럭 운행이 중단될 우려도 있어 자동차업체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 승용 모델(레저용 차량 포함·상용차 제외)은 총 19만5835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만7009대와 비교해 31.8% 줄어든 것이다.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해 올해 9월까지 전체 승용 모델 판매가 111만6907대로 전년(121만3442대) 대비 8.0%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경유 승용차 판매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산과 수입 브랜드를 합쳐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경유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3.7%에서 6.1%포인트 하락한 17.5%에 그쳤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산 완성차 5사의 경유 승용차 판매는 16만4317대로 전년 동기(22만9028대)보다 28.5% 줄었고, 국산 전체 승용차 시장 내

비중도 작년 22.5%에서 올해 18.2%로 4.3%포인트 하락했다. 수입 브랜드의 판매 감소율은 더 높았다. 같은 기간 수입차 브랜드의 경유 승용차 판매는 3만1518대로 전년 동기(5만7081대) 대비 44.8%나 떨어졌다. 비중도 14.7%로 지난해(29.8%)의 절반에 그쳤다. 국내 완성차 5사가 올해 판매한 경유 승용 모델의 종류는 2019년 30종에서 지난해 25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23종까지 축소됐다. 수입차 브랜드도 경유 승용 모델이 지난해 127개에서 올해 104개로 감소한 반면, 친환경차 모델은 89개에서 122개로 늘었다.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업체들의 친환경 모델 확대에 따라 경유차 모델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전용전기차 출시와 레저용 차량(RV) 및 중·대형 차에도 친환경 모델이 출시되면서 경유차의 경쟁

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로 경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면서 경유차 모델의 후퇴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디젤차 출고 때 차에 주입할 요소수 2개월 치의 재고를 확보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는 디젤차 출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요소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출고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악재로 꼽힌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차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요소수 부족으로 디젤차 생산 차질까지 빚어질 수도 있다”며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을 인도하기 위한 자동차 탁송 트럭 운행이 요소수 부족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아이오닉 대형 SUV ‘세븐’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컨셉카 ‘세븐’(SEVEN)의 티저 이미지를 최근 공개했다. <사진> 세븐은 전기차 시대에 현대차가 제시하는 대형 SUV 전기차의 디자인과 기술 비전을 담은 컨셉카로, 아이오닉이 제공하는 전기차 경험을 한층 더 확장시킨 모델이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새로운 SUV 전기차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븐은 아이오닉의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하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헤드램프에 적용했다. 차량 내부는 우드 소재와 패브릭 시트 등으로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표현한 프리미엄 라운지를 연상시킨다. 또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안락한 시트 배치와 여유로운 공간 활용성을 통해 거주 공간을 테마로 한 아이오닉 5보다 한층 발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11월에 개최되는 LA 오토쇼에서 세븐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6라운드 연속 우승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이 지난 6~7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1 CJ대한통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삼성화재 6000클래스 5라운드와 6라운드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6라운드 우승한 엑스타레이싱팀 정의철 선수의 차량 주행 모습. <금호타이어 제공>

렉서스코리아 젊은농부 발굴 ‘렉서스 영 파머스’ 4명 선정



렉서스코리아가 렉서스 복합문화공간 커넥트투와 함께할 ‘2021 렉서스 영 파머스(LEXUS Young Farmers)’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렉서스 영 파머스’는 전국 각지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젊은 농부들을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의 한 걸음’을 주제로 공개 모집을 거쳐 강진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여은주(34)씨를 비롯해 전북 무주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권성현(35), 강원 영월 토마토 원승현(39), 영월 케일 김지현(34)씨 등 4명의 농부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소정의 농업개발 지원비, 농업전문가의 멘토링은 물론 렉서스의 복합문화공간 ‘커넥트투’(CONNECT TO)와 협업을 통한 음료 및 레시피 개발과 판매,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지원받게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완성차 대기업에 중고차 시장 열어 소비자 피해 막아야”

자동차산업연합회 온라인 포럼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구조와 미흡한 애프터서비스(AS) 체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하루빨리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8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연간 190만

5000대)의 1.32배인 연간 약 251만5000대로 22조원 규모이지만, 개인 간 직거래 비중이 55% 이상이다. 광 총장은 직거래 비중이 큰 이유로 ▲경쟁력·신뢰 있는 중고차 기업이 없다는 점 ▲중고차의 낮은 품질과 고무늬 가격 ▲왜곡된 중고차 시장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 뒤편으로 돌아간다는 점 등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사고와 침수 이력, 엔진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받거나 보증해주는 업체가 없으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광 총장은 특히 왜곡된 중고차 시장 구조가 소비

자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 2014년부터 작년까지 중고차 거래 사기는 총 55만4564건으로 약 2900억원 규모이며, 이는 매일 217건, 약 1억1000만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광 총장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수준 높은 품질 관리와 AS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며 “성능과 사고 유무 등 차량의 상태는 완성차 업체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기아 전기차 모델 ‘EV9’

11일 콘셉트카 온라인 공개

기아는 오는 11일 오후 5시 전용 전기차 모델 ‘EV9’의 콘셉트카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8일 기아에 따르면 기아는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11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5시) EV9 콘셉트카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EV9은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보다 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로 예상되며, 이번에 공개되는 이미지는 실물보다는 티저일 가능성이 높다. EV9은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이 도입되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 열리는 LA 오토쇼에서 EV9 콘셉트카가 공개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